

〈11월 28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법사소개
- 청법가
- 법문 - 〈성철 큰스님 행장〉 원택스님
- 정근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12. 5(토)	대각전 원불봉안 법회	일면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12. 12(토)	불교, 스님 그리고 나	박현숙 교장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12. 19(토)	진언수행 입문	교법사 진우스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금일 漢詩반은 휴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11월까지 봉불 신청(완납) 하시면 금년에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원불봉안 봉축 토요일 법회 식순

※ 일시 : 불기 2559년 12월 5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대각전

※ 식순 : <1부> 봉불 헌공과 축원(9:30~11:00)

· 점안의식(법주: 동주 여장스님, 증명: 보광 총장스님)

<2부> 봉불 봉축 토요일 법회(11:00~12:00)

-삼귀의

-경과보고(대외협력처장)

-치사(총장스님)

-청법가

-법문(일면 이사장스님)

-정근보시

-음성공양(정각원신도회 합창단)

-사홍서원

봉안불자는 물론, 일반 신도 모두 참석가능하며  
기념품 증정이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보시동참

☎ 11월 23일 불전 공양 ☎

₩2,192,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도문큰스님, 보광스님, 해주소님, 강은희, 고목훈,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기현, 김대기, 김동연, 김문자, 김상애, 김세라, 김시현, 김영희, 김원욱, 김종관, 김형근, 남창강, 박사임, 박성진, 박세협, 성장기, 신재호, 안대준, 우성운, 원서준, 윤규리, 윤병남, 윤주영, 윤호문, 이권학, 이기형, 이동하, 이민기,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정도원륜, 정보현, 진민경, 최선자, 허남걸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2,386,400원

(법사비, 토요일 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기도 ☎

김미선, 김승규, 김용순, 김월용, 김은영, 김지수, 김진규, 김호진, 이용순, 이용호, 정보현, 정은재, 정재우

☎ 공양 보시 ☎

❖ 불단 떡, 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1월 28일

제312호(週刊)



훌륭한 이는 집착하지 않고 덕 있는 이는 바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는 행복과 불행을 만나더라도 기뻐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법구경]

## 도문 큰스님 초청 토요일법회 봉행



◎ 21일(토)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큰스님을 모시고 토요일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총장스님을 비롯하여 215여명의 신도·교직원·학생이 동참한 가운데 <열반의 의미>라는 주제로 귀한 가르침 주셨습니다. 정각

# 성철 큰스님 행장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

퇴옹당(退翁堂) 성철 대종사(性徹大宗師)께서는 1912년 4월 6일(음 2월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합천이씨(陝川李氏) 가문에서 태어나시니 엄부(嚴父)는 상언(尙彦)이시고 자모(慈母)는 진주 강씨(晉州 姜氏)셨으며 속명(俗名)을 영주(英柱)라 하였다.

큰스님은 천성이 총민하시고 눈빛이 남달랐으며 다섯 살에 능히 글을 짓고 시를 쓰니 모두 천재신동이라 하였다. 소학교(小學校)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마친 뒤로는 남에게 더 이상 배운 바 없이 스스로 학문을 독학하시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From Eternity to Eternity)’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철학, 의학, 문학 등 동서고금의 책을 두루 독파하셨다. 나이 20세전까지는 불교에 전혀 아는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으셨다고 한다.

20세가 지난 후 지리산 대원사를 휴양차 드나들면서 불교를 접하게 되고, 한 노스님으로부터 영가대사(永嘉大師)의 『증도가(證道歌)』를 받아 읽고 캄캄한 밤중에 밝은 햇불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아! 이런 공부가 있구나!’하는 충격과 함께 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다고 한다. 대원사 탐전에서 ‘무(無)자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한지 40여일 만에 문득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동정일여(動靜一如)에 이르게 되었다.

화두참선에 확신을 가지고 1936년 봄 25세에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가야산 해인사로 떠나면서 ‘출가시(出家詩)’를 읊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들은  
붉은 화롯불에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 가라  
만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彌天大業紅爐雪이요 跨海雄基赫日露라  
誰人甘死片時夢가 超然獨步萬古眞이로다.

그 해 봄 해인사 백련암(白蓮庵)에서 동산(東山)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受戒得度)하고, 같은 해 운봉화상(雲峰和尚)으로부터 비구계(比丘戒)를 수지하였다. 이후 범어사 금어선원, 금강산 마하연 등 남북 제방선원에서 안거하셨으며, 특히 범어사 내원암에서는 3.1만세운동의 주역이기도 한 백용성 스님을 시봉하기도 했다. 1940년 29세 때 대구 동화사(桐華寺) 금당선원(金堂禪院)에서 마침내 칠통(漆桶)을 타파(打破)하고 오도송(悟道頌)을 읊었다.

황하수 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 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黃河西流崑崙頂이여 日月無光大地沈이라  
遽然一笑回首立하니 靑山依舊白雲中이로다.

이후 1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로 고행 정진하시니, 언제나 안목이 투철하여 그 선기(禪機)를 당할 자가 없었다. 8.15 광복 직후 문경 봉암사(鳳巖寺)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청담, 향곡, 자운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주도 하였고, 1955년 교단정화 후 초대 해인사 주지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시고, 팔공산 성전암(聖殿庵)으로 옮겨 철망을 치고 10년을 동구불출(洞口不出)하며 훗날 ‘성철 불교’라 일컫게 된 독보적인 불교이론과 실천논리를 확립하게 된다.

1967년 가야산 해인사 해인총림(海印叢林) 초대 방장(方丈)에 추대되시고 백일법문(百日法門)을 열어 무량중생(無量衆生)을 교화하기 시작했다.

그 독보적인 사상과 선풍으로 1981년 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대 종정(宗正)에 추대되시고 이 땅의 불교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큰스님께서는 종정 재임 중에 종문(宗門)의 이론서인 『선문정로(禪門正路)』와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발간하시고는 “부처님께 밥값 하였다.”고 혼연해 하셨다.

출가하여 처음으로 삭발하고, 말년에 20여년을 주석하시던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에서 1993년 11월 4일(음 9월 21일) 아침 7시경 상좌들에게 “참선 잘 하라”는 말씀을 전하며 열반송을 남기셨다. 세수(世壽)는 82세요, 법납(法臘)은 58세.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生平欺誑男女群하니 彌天罪業過須彌라  
活陷阿鼻恨萬端이여 一輪吐紅掛碧山이로다.